



봄 옷 입은 화엄사 올벚나무

천연기념물 제 38호인 화엄사 올벚나무가 화사하게 봄 옷으로 갈아 입었다. 화엄사내 지장암 부근에 있는 이 나무는 수령 350년(추정)으로 국내 최고령 올벚나무로 유명하다. <구례군 제공>

멸종위기 동·식물 자원 보존

행남자기-국립생물관 MOU

행남자기가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 자원관과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환경 문화상품의 공동개발을 통해 멸종위기의 동·식물 자원 보존에 나섰다.

행남자기(대표이사 노희웅)는 최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국립생물자원관과 생물자원 발굴·보존에 관한 협력 및 자연친화적 생활용품 개발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생물자원의 활용 및 보존활동 지원 ▲환경 문화상품 공동

개발 ▲생물자원 보존 캠페인 ▲기획 전시회, 공모전 등 행사 개최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세밀화 공모전의 우수작을 활용해 환경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생물자원관과 연계해 진행한다.

행남자기는 사라져 가는 반달곰, 금강초롱꽃, 산천이 등이 그려진 머그·커피잔과 다과접시 등을 제작해 판매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농림바이오 2차 사업단 최종 선정 국비 15억 지원

벼 대체작물로 '쪽' 재배… 내년까지 염색센터 건립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천연염색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은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 2단계 연구수행 사업단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 2008년부터 향토자원에 대한 바이오기술의 연구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농림바이오파워 히트상품 20여개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나주염색문화재단은 세계적으로 5조원에 이르는 천연염색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인디고·인디루빈 생산작물의 산업화 연구'를 수행과제로 응모해 1단계 연구 사업단으로 첫 선정된 바 있다.

이번 2단계 사업단 선정은 1단계 5개 사업단의 1차 연구실적을 평가해 4개 사업단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염색재단은 1단계 연구 사업으로 인디고·인디루빈 생산작물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인디블루에 천연염색 원료작물인 토종 '쪽', 청바지 염료로 인도가 주산지인

아열대식물 '인디고페리'와 유럽이 주산지인 열대식물 '대청'의 대량재배 기술을 국내환경에 맞게 체계화했다.

또 이달부터 2013년까지 진행될 2단계 연구 사업으로 원료작물에 대한 환원미생물 유전자(DNA)분석과 인디고블루 염색에 가장 적합한 유전자의 대량 확보를 위한 유전자 복제 연구를 마치고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와 재배식물에 대한 품종등록 및 제품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천연염색재단의 농림바이오산업화 연구 사업이 순항함에 따라 쪽 천연염료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에 대체 소득 작물로 쪽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을 늘려서 올해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2012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

신안 임자도~송이도 연안

국립해양원, 해역조사 실시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부소(소장 김종철)는 오는 11월23일 까지 신안군 임자도에서 송이도에 이르는 연안 해역조사를 실시한다.

임자도 북부 부근 약 144km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수심측량, 멀티빔을 한층심기를 이용한 정밀 해저지형조사,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한 해저면 영상탐사, 고해상도 지층탐사기를 이용한 천부지층탐사 등이다.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임자도 부근의 행해 위험물, 해저지형 등 최신 정보를 확보해 긴급한 사항은 항행통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한편 최신 해안 안전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장홍기 관장은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나주가 한국 천연염색의 메카로서 연구 및 산업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목포해경, 지역언론인과 상호협력 친선 체육대회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최근 지역 언론인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언론인 10명과 목포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 해경 관계자 17명이 참석해 체육대회를 통한 친목을 다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했다.

/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여수에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하루 100t 처리·30t 재활용 선별… 年 7억 수입증대 효과

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국가산단에 판매할 수 있어 연간 7억원의 수입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그동안 폐기물을 만 흥·월내 위생매립장에 직매립 해왔으나 앞으로는 종합처리시설에서 소각 재배물만 매립하게 돼 매립량이 하루 평균 283t에서 184t으로 98t 가량 감소하게 됐다.

또 위생매립장의 수명이 만종위생 매립장의 경우 22년에서 29년으로 7년 연장되고 월내위생매립장은 9.6년에서 17년으로 각각 늘어나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지리산온천랜드' 3년반만에 재개장

물놀이 테마파크로

지리산 온천지구를 대표하는 시설인 '지리산온천랜드'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년6개월 만에 재개장했다.

18일 구례군과 지리산온천관광개발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지리산온천스파랜드(이하 지리산스파)'가 지난 15일 재개장식을 갖고 순탄히에 나섰다.

지리산스파는 지난 2007년 10월 휴업에 들어간 이후 경기침체 영향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간지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리모델링에만 1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리산스파는 기존 2600m² 규모의 애완수영장을 사계절 물놀이 시설인 테마파크로 꾸미고, 호텔을 증축해 객실 규모를 24실에서 50실로 확장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마치고 준공검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는 22일께 재오픈 할 예정이다.

지리산온천관광개발 박영래 이사는 "우여곡절 끝에 지리산스파를 재개장한 만큼 지역민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10월 초 착공하는 골프장이 완공되면 온천과 연계한 페키지 관광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병원!!!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곳

